

# 갈 곳 잃은 엑시노스... 삼성전자, 자체 AP 전략 '분수령'

갤럭시S23, 엑시노스 비중 ↓  
구글 등 협력... 차기 시리즈 개발  
새로운 IP 활용 제품개발 가능성도

국산 시스템 반도체의 자존심, 삼성 전자 엑시노스가 표류하고 있다. 성능 개선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사 플래그십인 갤럭시S 시리즈 탑재 비중도 축소되는 상황, 점유율을 방어하던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도 침체하면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쿼텀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차세대 플래그십인 갤럭시S23에 스냅드래곤 탑재 비중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쿼텀이 삼성전자 차세대 플래그십에 자사 AP 비중을 100%로 높였다고 밝힌 것. 협력사가 공급사 관련 내용을 확정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삼성전자가 일찌감치 쿼텀과 이같은 내용으로 협의한 것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직 출시 시기가 남아있는 만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지만, 엑시노스 탑재



모델에 대한 성능 문제가 여러해 이어진 터라 마케팅 면에서도 스냅드래곤 비중 확대는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엑시노스 개발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차세대 플래그십 AP인 엑시노스 2300을 개발 중이다. 블루투스 5.3 인증도 받았다. 중저가 스마트폰용으로 추정되는 1330과 1380 개발 소식도 유출됐다.

중저가 시장에서는 성과도 있었다. 옴디아에 따르면 중저가 AP 시장에서 엑시노스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53% 늘었다. 점유율은 7.8%, 다른 브랜드들이 모두 출하량을 10% 안팎 줄인 것과 다른 모습이다.

다만 이같은 성과는 오히려 엑시노스가 플래그십 시장에서 밀려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엑시노스 출하량이 늘어난 이유는 갤럭시 A와 M 등 중저가 모델에서 비중을 늘린 영향인데,

중저가 제품에 주로 사용됐던 '가성비' 브랜드 미디어텍은 최근 플래그십 수준 제품인 '디멘시티 9000' 시리즈로 성능을 인정받으면서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플래그십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플래그십에 엑시노스를 탑재하려던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미디어텍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비보와 샤오미 등이 미국 무역 제재로 AP를 현지에서 생산하기 어려워지면서 엑시노스 1080 등을 대안으로 삼는 듯 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플래그십에 디멘시티 9200을 탑재하는 등 미디어텍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엑시노스가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는 얘기도.

엑시노스 점유율 축소 이유는 여러 추측이 있지만, 성능면에서 상대적으로 이점이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속도 뿐 아니라 발열 등에서도 단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MD와 힘을 합쳐 GPU를 개선한 엑시노스 2200을 개발했지만, 기대만큼 성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오류도 많아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설계 인력을 확보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협력 관계도 강화하는 모습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AMD뿐 아니라 구글까지 함께 스마트폰용 칩셋 개발을 위해 협력 중이다. 갤럭시S25에 탑재할 목표로 엑시노스를 개발 중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사인 만큼, 시너지 효과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길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Arm이 쿼텀을 상대로 자사 IP에 타사 기술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걸면서 관련 업계가 Arm 아키텍처 대안을 찾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Arm을 벗어나 새로운 IP를 활용해 갤럭시만을 위한 새로운 엑시노스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두산퓨얼셀, 수소연료전지 해외수출 본격화

중 현지기업 공급 계약... 합작사 설립  
단계적으로 105MW 수소연료전지 수출

두산퓨얼셀이 중국에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하게 됐다.

두산퓨얼셀은 중국 ZKRG 스마트에너지테크놀로지사와 수소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맺고 합작사를 설립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ZKRG는 영병합발전(CHP)용 수소연료전지 기업이다. 지난해 9월에도 중국 포산시 난하이 지역에 두산퓨얼셀의 440kW 수소연료전지 4대를 공급한 바 있다.

두산퓨얼셀은 이번 계약으로 중국에 총 105MW 수소연료전지를 단계적으로 수출하게 됐다. 2024년까지 50MW를 완제품 형태로, 2026년까지 55MW를 부품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두산퓨얼셀 연료전지

아울러 두산퓨얼셀은 ZKRG와 합작 회사를 설립해 중국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장 조성 지원과 사업 기회 발굴, 판매 등을 맡길 예정이다.

또 중국 광둥성에서 추진 예정인 '탄소배출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한다. 광둥성과 허베이 등에선 영병합발전 가능 수소연료전지 수요가 많아 열과 전기를 모두 생산하

는 두산퓨얼셀의 인산형연료전지(PAFC) 수출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수소에너지 산업 중장기 계획'을 통해 수소산업 기술혁신 체계와 그린 수소 공급 체계를 갖추겠다고 발표하면서 수소연료전지 시장 육성을 선언한 바 있다. 2035년까지 수소 활용 생태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제후석 두산퓨얼셀 대표는 "ZKRG사는 두산퓨얼셀이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를 해외에 수출하는 데 협력한 파트너"라며 "두 회사 간 신뢰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시너지가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일정 수준 이상 수요가 확보되면 중국 내 수소연료전지 공장 건설 및 서비스 법인을 설립해 공급 확대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 기아-티비유, 에너지거래 솔루션 실증 추진

차량간 급속충전 신시장 개척 맞춘

기아가 차량간(V2V) 급속충전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선다.

기아는 21일 서울 기아 360에서 스타트업 티비유와 전기차 V2V 급속 충전 신기술 기반 에너지 거래 솔루션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기차끼리 에너지를 주고 받는 V2V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사용자 충전 체감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기아와 티비유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차 소유 고객의 체감 충전시간 감감 ▲전력 재판매를 통한 수익 모델 확보 ▲에너지 시장 활성화 대비한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백상진 티비유(TBU) 대표(왼쪽), 윤승규 기아 국내eBiz솔루션 실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 촬영하고 있는 모습

기아 관계자는 "에너지 관련 규제 해소 시 차량간 급속충전 신기술은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확장성이 높으며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국내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고객의 미충족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실증 업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한항공 美 공군 F-16 수명연장 사업 순항

초도 항공기 출고 완료

대한항공이 지난 18일 미 공군 F-16 수명 연장 사업의 초도 항공기를 성공적으로 출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미 국방부로부터 2020년 11월부터 2030년 9월까지 약 10년간 주한 미군 및 주일 미군에 배치된 미 공군 F-16 전투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수명 연장 사업은 항공기 정비 중에서도 최상위 단계의 작업이다. 동체 및 날개의 주요 구조물을 보강,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를 통해 전투기의 비행 가능 시간을 8000시간에서 1만

2000 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팰콘(매)'으로 불리는 F-16 전투기는 1972년 개발 이래 현재까지 아태 지역 미 공군의 주력 기종이다. 대한민국 공군 또한 F-15K와 더불어 F-16을 주력으로 운영 중이다.

대한항공은 그간 쌓아 올린 정비비 능력과 전문화된 군수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1978년 미군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F-4, F-15, F-16, C-130, A-10 등의 전투기 및 수송기, RC-12, UH-60, CH-47, CH-53 등 정찰기 및 헬기의 정비비와 개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특히 이번 수명 연장 사업을 맡은 F-16의 경우 1984년 이후 현재까지 890여대에 대한 정비비 및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최근에는 미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H-53E 대형 헬기 정비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6000여 대의 군용 항공기 정비비 및 성능개량 작업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용기 MRO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한국타이어, 스코다에 전기차 타이어 공급

'벤투스 S1 에보3 ev' 공급  
핑크 스스로 봉합 '실가드' 탑재

한국엔타이어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스코다 첫 순수 전기차 타이어 공급자로 낙점됐다.

한국타이어는 스코다 엔야크iV에 '벤투스 S1 에보3 ev'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스코다는 폭스바겐그룹의 보급형 브랜드로, 엔야크iV는 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로 만드는 브랜드 첫 전기 SUV다. 2022년 상반기 네덜란드 누적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확인했다.

한국타이어는 폭스바겐 ID.4에도 벤

투스 S1 에보3 ev를 공급한 바 있다. 엔야크iV에도 공급을 이어가며 포트폴리오를 더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벤투스 S1 에보3 ev'는 전기차에 최적화된 전기차용 초고성능 타이어다. 특히 고성능 섬유로 만들어진 2중 카스(타이어 골격)를 탑재해 강력한 주행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적재 중량을 늘리고 연비 효율성까지 높여 한층 향상된 전기차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제공한다.

특히 엔야크iV에 공급하는 20인치 규격 타이어는 핑크 스스로 봉합하는 실가드 기능도 탑재했다. 핑크가 나면 내부 실란트가 즉각 균열을 메우는 원리다. /김재용 기자